

A Comparative Study of Cardinal Kim Sou-hwan and J. Moltmann's Theology of Suffering

Minkyun 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xamine three topics related to the problem of suffering, focusing on the theology of suffering developed by Cardinal Kim Sou-hwan and Jürgen Moltmann.

[Contents] While Cardinal Kim believed that those who suffer innocently can hope even in their suffering because of the reward of eternal life, Moltmann found the basis of this hope in the eschatological perspective confirmed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Cardinal Kim emphasized that God's omnipotence is a concept that respects the natural order and guarantees the freedom for humans to respond to God's love. Moltmann believed that by theologically examining the identity of the Trinity God in the 'cross of Jesus,' we can see that God reveals himself as 'the One who suffers in our suffering.' Both of the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acticing love toward marginalized neighbors. But Moltmann insisted that the experience of God's presence in suffering must precede the practice of love.

[Conclusions] First, the theology of suffering developed by Cardinal Kim and Moltmann discovers the possibility of hope even in suffering through the eschatological perspective of the completion of the kingdom of God. Second, through the event of the cross that clearly revealed the unconditional love of Jesus Christ for humanity, we can now understand God as the One who suffers with us in suffering. Third, the hope for a future eschatology and the experience of God's love in suffering enable us to anticipate the kingdom of God by solidarizing with social suffering, and to testify to God's love experienced in suffering.

[Keywords] Suffering, Eschatological hope, God's love, God's suffering, Practice of love

^{*} **Corresponding to** Minkyun Im (Professor, Catholic Colleg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 imminkyun@catholic.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김수환 추기경과 몰트만의 고통의 신학 비교 고찰

임민균*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김수환 추기경과 위르겐 몰트만이 전개한 고통의 신학을 중심으로 고통의 문제와 관련된 3가지 주제, 즉 ‘고통 속에서 희망 가능성’,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하느님 개념’, ‘사회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비교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먼저 김수환 추기경은 무죄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후세의 보상이 고통 중에도 희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았고, 몰트만은 이 희망의 근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내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확증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종말론적 전망에서 찾았다. 김 추기경은 사랑 자체인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은 자연 질서를 존중하고 인간이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게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개념임을 강조하였고, 몰트만은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정체성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신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자발적인 고통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며, 하느님이 자신을 ‘고통 중에 함께 아파하는 분’으로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인물 모두 ‘모든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복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몰트만은 우리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 실천으로 이끄는 고통 속에서의 하느님 현존 체험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수환 추기경과 위르겐 몰트만이 전개한 고통의 신학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하느님 나라 완성이라는 종말론적 전망으로 고통 속에서 희망할 가능성을 발견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극명하게 계시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미래적 종말론에 대한 희망과 고통 속에서 하느님 사랑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고통에 연대함으로써, 우리의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선취하고, 고통 중에 체험한 하느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

[주제어] 고통, 종말론적 희망,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고난, 사랑 실천

I. 서론

20세기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천주교의 대표 봉사자로서 신앙의 모범을 살았던 김수환 추기경(1922~2009)이 1966년 주교로 서품될 때 선택한 사목 표어는 미사 중 성찬 제정문에 나오는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라는 문구이다. 이 사목 표어를 통하여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신적 능력을 버리고 몸소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모든 이의 밥이 된 성체성사의 신비를 따르려는 그의 신앙과 포부를 엿볼 수 있다(The Cardinal Stephen Kim Sou-hwan Compilation Committee[CSKSCC], 2001, Vol. 16: 439). 김 추기경은 비록 몰트만과 같이 학계에 머물면서 고통의 문제와 관련한 신학적 이론을 체계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에 따라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실천적 신학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Park, 2018: 188). 왜냐하면 일본 유학 시절 일본군으로 징집되어 제2차 세계 대전의 참혹함 속에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하였고(Lee, 2016: 119-135), 이후에는 교회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개인 고통의 문제들과 부(不)정의한 사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면하면서도 신앙의 힘으로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남겼기 때문이다.

한편 김 추기경과 동시대를 살았던 개신교 신학자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2024)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군으로 참전한 뒤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3년간 영국에서 전쟁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포로 생활 중에 그는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수많은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는 상황을 허락한 하느님을 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적 갈등에 직면하였다. 이 내적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읽던 중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Mark 15:34)라는 울부짖음 속에서 이 하느님이야말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분임을 확인한 뒤,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 신앙적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울부짖음 속에서 그는 인간의 고통까지도 함께 나누는 사랑의 하느님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하느님만이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내적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고백했다(Moltmann & Suh, 2014: 258-261).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자기 탓 없이 겪게 되는 고통의 상황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그리하여 무신론자들은 그리스도교가 고백하는 사랑 자체인 하느님이 이러한 무죄한 고통이나 죽음을 허락하는 이유를 어떠한 신학적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한다(CSKSCC, 2001, Vol. 4: 164).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고 있고, 추기경 선종 1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2024년은 천안함 피격 사건 14주기, 세월호 참사는 10주기, 그리고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와 유가족들, 더 넓게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 참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화해와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와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교회 일치 운동 차원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과 몰트만이 전개한 고통의 신학을 중심으로 무죄한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3가지 주제, 즉 ‘고통 속에서 희망 가능성’, ‘고통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하느님 개념’, 그리고 ‘사회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 신앙이 제시할 수 있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원들에게 종교의 다름과 유무에 관계 없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II. 고통 속에서 희망 가능성

1. 고통 속에서도 희망 가능성을 제공하는 종말론적 전망

김수환 추기경은 평소에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앙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고통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산모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처럼 고통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기쁨과 사랑이 존재하기에, 이 고통에 능동적으로 직면함으로써 참으로 사람과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CSKSCC, 2001, Vol. 4: 46; Kim, 2000: 40-41). 하지만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교통사고 등으로 자기 탓 없이 고통을 겪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사례를 접하게 될 경우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무죄한 고통은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단정을 짓고 더 나아가 신(神)의 존재까지 부정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추기경은 모든 인간에게 고통을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랑과 평화와 같은 형이상학적 가치들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결실이 이 세상의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불멸의 것으로 남아야 한다는 갈망이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비록 시공간 속에 얽매어 있지만, 본성상 이를 초월하는 진리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에서 추구하는 초월적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이다(CSKSCC, 2001, Vol. 4: 13-15).

그렇다면, 그리스도 신앙은 무죄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김 추기경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상선별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세계의 부당함과 무죄한 고통의 무

게로 느끼게 되는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함으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삶을 영위할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후세에 실현될 하느님 나라 완성 소식은 고통의 당사자는 물론 그 고통을 함께 한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상으로 위안받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CSKSCC, 2001, Vol. 4: 182-185, 190-191).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맥락에서 몰트만도 자신이 전개한 고통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부활이라는 종말론적 전망에서 이해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해석적 지평을 토대로 ‘고통 중에도 희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신학적으로 고찰하였다. 몰트만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종말론적 전망’이 단지 세상의 끝을 다루는 신학의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신학의 기본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특히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고통 중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근거로서 ‘미래적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 집중함으로써 김 추기경이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상’ 차원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한다. 실제로 1964년 출간한 『희망의 신학(Theologie der Hoffnung)』에서 몰트만은 당시 개신교 신학의 주류를 이끌었던 인간 실존의 현재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는 실존 신학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증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완성이라는 전망에서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해석하는 ‘미래적 종말론’을 신학 연구의 출발점이자 기본 토대로 삼는 방법론적 전환을 가져왔다(Moltmann, 1975: 148-151; 2017c: 23-25). 특히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실존 신학이 고통의 현재에서 하느님의 현존 체험 가능성에 집중하였다면, 몰트만의 종말 신학은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세상에서 무죄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종국에 가져올 악과 고통의 실체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는 물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하느님 나라 완성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을 그들 고통의 의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하였다(Moltmann, 2017c: 29-47).

한편 김수환 추기경이 무죄한 이들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 신앙의 답변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상 개념을 설명하는 논리적 전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 삶에서 계시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에 대한 성찰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부정할 수 없다. 반면 몰트만은 고통의 문제와 관련된 하느님의 계시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건,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 인물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언급 가능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세상을 상징적으로 대표하지만, 역설적으로 같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약속한 성취될 종말론적 미래 덕분에 고통과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실체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고통 중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철저히 그리스도론적으로 설명하였다(Moltmann, 2017c: 116-117).

2. 그리스도교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 기독교는 언제든지 희망의 종교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우리 말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뜻의 얘기인데 그 종말이라는 말에는 완성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에 가는데, 영광스러운 완성을 목표로 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종말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영원의 시작, 참된 영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인간이 참되고 죄에서도 해방되고 죽음에서도 해방되고 모든 억압에서도 해방[될 것입니다](CSKSCC, 2001, Vol. 15: 71-72).

위 인용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수환 추기경은 1975년 『신동아』와 가진 ‘종교와 인권’에 관한 신년 대담에서 사이비 종교가 ‘종말’이라는 용어를 마치 세상의 끝과 멸망이라는 어둡고 부정적인 공포심을 사람들에게 심어 자기 종교에 가입을 강요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몰트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에서 ‘종말’은 근본적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이 ‘완성’되는 상태임을 강조하였다(Kim, 2005: 36).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종말론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하느님 나라가 단지 허영이나 말뿐이 아니라 실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하여 ‘종말’이라는 용어는 이 현재의 ‘완성’ 또는 하느님 나라라는 영원한 세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단, 김 추기경은 사이비 종교와 같은 ‘종말’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악용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천주교 신앙을 대표하여 메시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종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다.

김 추기경은 교회가 비록 이 세상 안에 현존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초월하는 종말을 지향해야 한다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될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으로 세상 안에서 실존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고통을 능동적으로 직면할 수 힘을 제공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신의 삶에서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교회가 사회적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며, 이 문제를 종교적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단지 미래에 도래한 실체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양한 차별과 갈등을 극복하여 서로 형제적 사랑을 맺음으로써 이 나라를 선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CSKSCC, 2001, Vol. 13: 71; Vol. 15: 88-89).

몰트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의 경향성에 관한 학문이며, 그래서 사명에 대한 실천적 지식으로 바로 넘어간다”(Moltmann, 2017c: 257)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김 추기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시하는 희망은 현실의 문제를 회

피하지 않고 이 고통의 세계를 실제로 극복하기 위한 ‘실천 지향적 지식’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몸소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낸 인간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은 이제 자신의 부활 사건을 통해 ‘희망’과 동행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이라는 희생적 사랑을 통해 드러낸 것처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고통을 함께 극복하려는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염원하는 종말론적 희망은 불의가 만연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저항을 통해 궁극적인 극복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든 신학의 기본 토대인 종말론적 전망은 신학의 영역을 개인의 실존에서 정치적 지평으로 확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종말론적 미래의 희망이 현대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Moltmann, 1975: 154-157; 2017c: 291-301; Kim, 2005: 50-52).

III.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하느님

1. 하느님의 자발적인 고통 가능성

대한민국 가톨릭교회를 대표하는 사목자로서 김수환 추기경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회 문제에 대하여 천주교의 입장과 이상적 해결책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이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단연코 고통의 문제, 특히 전지전능하고 절대 선(善)인 하느님이 무죄한 이들의 고통을 허락한 이유였다. 왜냐하면 인식하지 못한 죄에 대한 별로서만 무죄한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고전적 해석은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절대 선(善)과 무죄한 이들의 고통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논리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Moltmann, 2017d: 88). 예를 들어 1985년 수많은 죄 없는 이들의 희생을 초래한 아웅산 사건¹⁾, 1997년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²⁾ 등이 발생하도록 하느님이 허락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 김 추기경은 그리스도 신앙적 관점에서도 명료한 이성적 답변이 불가함을 겸손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하느님이 무죄한 고통을 허락한 이유를 알 수는 없더라도, 이것이 하느님이 고통의 방관자로 머물거나 ‘하느님의 부(不)존재 또는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동시에 강조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는 고통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 채 그

1) 1983년 10월 9일 전두환 대통령의 서남아시아 순방 중 미얀마 양곤에 있는 아웅산 묘역에서 북한이 장치한 폭탄이 터져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폭탄 테러 사건이다.

2) 1997년 8월 6일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801편이 악천후 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 폭파한 사건으로 탑승객 254명 중 228명이 사망하였다.

저 운명처럼 견디어야 하는 실체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에서 고백하는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은 자연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역행하거나 파괴하고,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일종의 로봇처럼 통제하는 차원의 개념이 아님을 김 추기경은 강조했다. 이러한 개념은 하느님이 자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고, 인간에게 하느님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신앙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CSKSCC, 2001, Vol. 4: 189, 231-232, 322-325).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을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분으로 하느님을 이해할 경우, 이 하느님은 오히려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요술램프의 지니나 자판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CSKSCC, 2001, Vol. 4: 164; Vol. 13: 211).

김 추기경이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 자신이 창조한 자연 질서를 존중하고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을 보장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해했다면, 몰트만은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을 ‘사랑 자체인 하느님’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하느님이 ‘자발적으로 고통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확인한다. 그리하여 몰트만에게 고통의 신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간파하며 전개하는 모든 신학은 아무런 울림을 줄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하게 된다(Moltmann, 2017b: 5-6).

이러한 이유로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신학적으로 성찰하면서 하느님의 자발적인 고통 가능성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한다. 1964년 『희망의 신학(Theologie der Hoffnung)』에 이어 몰트만은 1972년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Der gekreuzigte Gott)』을 발간한다.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작이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드러나는 종말론적 희망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번 저서에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십자가 죽음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과연 고통의 현재에서 어떠한 하느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시도한다. 비록 하느님 나라 완성과 관련된 미래적 종말론이 고통의 현실에 희망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고통의 현실에서 하느님과의 만남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희망이 한낱 그리스도와 관련된 상상적 신화로 머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상호 보완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해야만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Moltmann, 2017c: 13-14; 2017b: 5-12, 163-164).

그리스도교 신학은 …… 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한다. ……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 시대의 고난’을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피조물의 외침을 하느님과 자유를 향한 그들 자신의 외침으로 삼는다. …… 만일 그리스도교 신학이 그리스도교적 신학으로서 그리스도와 동일화

되어야 한다면, 그리스도교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을 의미한다. …… 그리스도교적 실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인간 자신과 사회적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천이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 신학은 실천적인 이론이다(Moltmann, 2017b: 42-44).

위 인용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 신학이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드러내는 가장 큰 특징은 하느님이 자신의 신성(神性)을 버리고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몸소 인성(人性)을 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운명처럼 직면해야 하는 고통, 죽음 등의 부정적 실체를 인간을 대신하여 몸소 짊어지고 급기야 십자가 죽음까지 감내했다는 희생의 신비라 할 수 있다. 하느님의 고난은 인간이 운명처럼 맞닥뜨리게 되는 고통이 아니라 ‘자발적인 고통’이며,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 없다면 ‘사랑 자체인 하느님’이라는 고백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사랑은 당사자가 필요하며, 사랑의 관계에서 고통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Moltmann, 1973: 147; 2017d: 99-102; Choi, 2020: 158-161; Park, 2012: 265-269).

2.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렇다면 사랑 자체인 하느님은 무죄한 이들이 고통과 죽음의 문턱에서 괴로워할 때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이 질문에 김 추기경은 조심스럽게 하느님도 그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었을 것이라 대답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 몸소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肉化) 사건과 인간이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마저도 함께 나누고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홀로 고통과 죽음을 감내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느님이 지금 절망에 빠진 이들과 죽음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이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모든 영혼과 함께 고통당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분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사실 참 하느님이요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를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고통과 죽음에 참여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짐으로써 어쩌면 우리보다 고통에 더 가까운 분이며, 어떻게 이 고통의 실체를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구체적인 삶을 통해 보여주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Cho, 2012: 77-81; Pak, 2021: 253-254). 실제로 김 추기경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엘리 위젤이 쓴 『밤』에서, 나치들이 재소자들의 반발심을 잠재우기 위하여 세 청년을 공개 처형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인 채 ‘하느님은 어디 있는가?’라고 외쳤을 때, 어떠한 이가 하느님이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뜻으로 ‘하느님은 저기 매달려 죽어가고 있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야기를 1997년 KAL기 추락 사고 희생자 추모 미사 강론에서 언급하기도 하였다(CSKSCC, 2001, Vol. 4: 232-233). 그리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고통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 하느님께

하소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리치고 아파하며 그들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하느님의 실존을 체험하고 고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CSKSCC, 2001, Vol. 4: 164-165, 320-321, 344-345; Nho, 2020: 83-84).

김수환 추기경은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분’이라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신부전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음에 이르기 3개월 전 시각 장애인인 된 젊은 사제의 시한부 삶을 소개하였다. 그 신부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이유 없이 찾아온 시한부 선고가 주는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김 추기경이 방문했을 때 그는 오히려 다른 병고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면서, 고통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했다. 이를 통해 추기경은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은 고통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것 없이 우리는 그를 깊이 알 수 없고, 그와 깊이 만날 수 없[음]”을, 그리하여 고통을 통해 인간 삶이 성숙해지고 이웃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간접 체험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만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다고 김 추기경은 보았다(CSKSCC, 2001, Vol. 4: 280-281; Vol. 15: 199-201).

한편 몰트만은 자신의 참전 경험을 통해 이전에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느님의 책임을 변호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던 고전적 신정론의 질문 방향을 전환시킨다.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은 형이상학적 하느님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고, 참혹한 전쟁 속에서 외면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무죄한 이들의 고통과 죽음의 상황에서 과연 하느님은 어디에 있는가?’ 더 나아가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은 자기 내면에서 함께 아파하는 하느님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인간을 구원하고 고통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하기 위하여 하느님 자신이 인간 고통을 자발적으로 감내함으로써, 자신을 ‘사랑의 하느님’이자 ‘인간과 함께 고통당하는 하느님’으로 계시한다고 보았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Mark 15:34)라는 예수의 외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의 십자가는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음을 의미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예수가 그토록 특별한 친밀 관계에 있다고 묘사한 사랑 자체인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하느님 아버지의 부성에 관한 논리적 모순으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인간 이성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무언가, 즉 성부 하느님과 예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몰트만은 보았고, 이 해석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십자가 사건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한 점이 김수환 추기경이 성찰한 고통의 신학과 비교할 때 드러나는 몰트만 신학의 가장 독특하고 새로운 면모라 할 수 있다(Moltmann, 2017b: 214-227).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삼위일체 하느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핵심 단어로 몰트만은 “자기 아들을 아낌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Rom 8:32)와 “하느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셨다”(Gal 2:20)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내어주다’라는 표현의 서로 다른 의미에 신학적 관심을 집중한다. 성부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의 죽음에 고통 당한다. 반면, 아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어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희생적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십자가에 달린 하느님’이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내어주는 성부 하느님과 버림받은 아들 예수는 가장 깊이 분리되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자발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공통 분모로 성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신비를 보여준다. 그 결과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하느님’이라는 새로운 하느님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고 몰트만은 보았다(Moltmann, 2017b: 270-279; 2017d: 153-154; Kim, 1990: 106).

IV. 사회적 고통에 직면하기 위한 사랑 실천의 중요성

1.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해방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할 필요성

1970년대 이후 김수환 추기경의 사회적 발언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인간 존엄성 문제’였다. 하느님의 모상(模像)대로 빚어진 인간 창조 신비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을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된 육화(肉化) 신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할 필요성을 환기하면서, 김 추기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 신앙적으로 아무 의미 없음을 강조하였다(CSKSCC, 2001, Vol. 15: 584-585; Park, 2013: 223-224; Suh, 2015: 206; Park, 2020: 26-27; Cho, 2011: 66-72; Pak, 2021: 256-257). 오늘날 인류가 획기적인 물질문명의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져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인간을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비인간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인간을 희생시키는 물질문명의 발전을 계속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 존중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물질문명 발전 속도를 제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수환 추기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가톨릭교회가 정통 교리를 수호하면서도, 현대인들이 상실하고 있는 인간 존중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의 내적 쇄신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일으키는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및 생명 존중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CSKSCC, 2001,

Vol. 13: 81-84, 315-317; Vol. 15: 92-95, 166, 284; Cho, 2011: 57-59; 2017: 67-70; You, 2012: 198-199). 특히 유신 시대와 군부 정권이 한국 경제의 획기적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정부의 정책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실정법에 반대하는 종교계의 목소리를 김 추기경이 자주 대변했던 이유는 종교의 정치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인권이 유린되어 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받는 사회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가 조속히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필요성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역설하였다(CSKSCC, 2001, Vol. 15: 309-312, 477-480, 504-506; Suh, 2015: 218-220; Kim, 2022: 101-103).

김수환 추기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향하는 정신에 발맞추어 교회의 사회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은 그 자체로 ‘모든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제도 교회 차원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며, 복음에서 제시하는 해방 선포를 위한 사회 원리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궁극적 해방은 인간이 하느님이 뜻하신 대로 하느님의 자녀 되고, 서로는 형제 되며, 태양같이 빛나는 존재되는 것”(CSKSCC, 2001, Vol. 13: 60)을 의미하며, 이 해방을 가져오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불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정체성(Luke 4:18-19)³⁾을 교회가 본받아 자신의 사회 참여로 실현할 때 민족, 국가, 인종, 피부색, 정치 및 경제적 차이 등으로 인해 인간 사이를 보이지 않게 갈라놓았던 장벽이 허물어지는 하느님 사랑 안에서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CSKSCC, 2001, Vol. 4: 347-354; Vol. 13: 57-59; Vol. 15: 500-502, 524; Vol. 16: 299; Nho, 2020: 86; Park, 2018: 205; Pak, 2021: 265-266). 하지만 김 추기경은 만약 교회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견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을 진행할 때 적지 않은 실패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인간 존중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동체 전체의 진정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스도 영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CSKSCC, 2001, Vol. 13: 62-64; Pak, 2021: 278-279).

한편 몰트만은 김 추기경과 같은 맥락에서 ‘모든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지향하는 사랑 실천을 추구하지만, 실천으로 이끄는 전 단계로서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실존 체험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낸 인간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희생적 사랑은 우리에게 강요된 고통

3) 루카 4,18-19: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에 대항하는 사랑의 저항이라는 실천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고통 중에 하느님 현존 체험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준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직면한 부당한 사회적 고통의 상황에 연대하게 되고, 이 사회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극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은 연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포한 메시아적 정체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본받는 길이며, 우리가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고통 중에 함께 아파하는 하느님’을 가장 탁월하게 증거하는 방법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몰트만이 추구한 고통의 신학은 단지 사변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실천을 지향하는 신학으로 발전함을 알 수 있다(Moltmann, 2017a: 155-157; Kim, 2015: 100). 실천 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김수환 추기경과 구분되게 몰트만이 유의한 점은 종말론적 희망은 항상 해방의 구체적인 실현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차원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실천적 제안이 특정 집단, 국가, 사회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으로 기울이지 않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Moltmann, 2017a: 39-42, 51; Kim, 2013: 226-227, 244-246).

2. 사회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고찰

김수환 추기경은 1968년 4월 27일 서울대교구 대주교로 피임된 직후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종교의 사회 참여에 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소신을 명시한 바 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신앙이 내세의 구원에만 치중한 결과 현실 생활과 유리되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급변해 가는 사회 변화 속도에 교회가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태도로 종교의 율타리 안에 안주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교회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현실 극복을 위해 협력할 필요는 있지만,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이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CSKSCC, 2001, Vol. 15: 3-5, 20-21; Park, 2013: 224). 하지만 교회가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사회 부패 및 빈부격차의 심화 등과 같은 사회윤리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랑과 평화 등의 형이상학적 가치들을 실현하여 공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면 교회의 공식적인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된 행동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CSKSCC, 2001, Vol. 13: 69-72; Vol. 15: 35-36, 70-71, 238-239; Vol. 16: 234-235).

실제로 김 추기경은 1989년 10월 4~8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한겨레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신앙인이 끊임없는 자기 쇄신을 통해 내적 성장을 도모하여 “(예수 그리스도) 성체(聖體)의 사회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삶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교회가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해방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그 해방의 토대에는 자신의 신적 위치까지 포기하면서 우리를 위한 양

식이 될 뿐만 아니라 무(無)가 되는 죽음의 운명까지 감내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희생적 사랑이 있음을 명심할 때, 대중들과 함께 기쁨은 물론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 속의 교회” 거듭날 수 있다고 보았다(CSKSCC, 2001, Vol. 15: 641-651; Vol. 16: 439; Cho, 2012: 81-85; Park, 2020: 29-32; Kim, 2022: 107-109). 실제로 김 추기경은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1988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밥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성사 신비를 본받아 교회가 생명 존중과 나눔 실천으로 이 신비를 증거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John 17:21)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이가 각종 차별을 극복하여 하느님 사랑 안에 한마음과 한몸이 되는 일치 공동체를 이룰 것을 지향하였다. 그 결과, 2024년 현재까지도 이 운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SKSCC, 2001, Vol. 6: 76-77; Park, 2019: 31-32; Kim, 2022: 103-104).

한편 1991년 「노동현장」 반포 100주년 기념 미사 강론에서는 인간 해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우선 ‘개인’은 이기심을 버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이 속한 ‘가정’ 공동체는 창조주 하느님의 섭리에 따른 일치, 즉 삼위일체 하느님의 상호 유기적인 사랑의 일치를 본받을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복음 선포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하였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사랑의 일치는 물론 주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만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이들은 여기에 만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John 15:13)는 복음적 가르침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CSKSCC, 2001, Vol. 4: 407-408; Vol. 6: 13-18; Vol. 13: 332; You, 2012: 182-184).

더 나아가 ‘국가’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사명이 있으며,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공정한 분배 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기업’은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인권과 공동선을 동시에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노동자’들도 생산 수단이 아닌 인격체로 존중받고 정당한 보수를 받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자신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급진적인 계급 투쟁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권리 보장과 함께 지켜야 할 의무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는 제도와 이에 합당한 실천이 동반될 때 비로소 하느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일치 공동체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CSKSCC, 2001, Vol. 13: 81-84, 332-333; You, 2012: 180-182; Nho, 2020: 88-89).

몰트만은 자신의 ‘희망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을 통해 사회적 고통을 어떻게 직면하고 극복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전망이 반드시 신학적 성찰의 기본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종말론적 전망이 고통의 현재에서 의미 있으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아 실제로 극복하는 실천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현재에서 선취(先取)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과 함께 아파하는 하느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실존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 사랑 체험은 우리를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이겨내는 또 다른 사랑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그리하여 몰트만은 인간을 억압과 고통으로 이끄는 모든 악순환에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앙적 관점에서 정치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정치적 해석학’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한 결론은 사회와 교회 내의 정치적 종교에 대하여 비판적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십자가의 신학은 국가를 정치적 우상숭배로부터, 그리고 인간을 정치적 소외와 권리박탈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를 비신격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치적 해석학은 …… 하느님의 고난의 상황에서의 삶의 해석학이 되고자 하며 그렇기 때문에 실천과 실천의 변형을 포함한다. 동정적인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해방은 인간을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악순환들 속에서 항상 실천된다(Moltmann, 2017b: 464, 467).

다시 말해, 몰트만이 추구한 정치 신학은 그리스도교 신학을 정치적 이데올로기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사회를 억압하는 각종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야기하는 인간 소외와 인권 탄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을 억압하는 악순환은 하나가 아니며, 복수적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 동시에 구제적인 해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가난의 악순환’이 존재하며, 이 악순환의 근본 원인을 착취와 계급지배,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분배에서 찾았다. 그 결과 빈부격차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기에 공정한 이익의 재분배를 통해 가난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사회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몰트만은 보았다. 두 번째로 정치적 차원에서는 ‘권력의 악순환’이 있으며 독재정치, 국가 내는 물론 국가 간에도 각종 지배 관계가 존재하여 각종 억압을 일으킨다.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개인이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정치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의 인간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로 가난과 권력의 악순환은 내재적으로 ‘인종적 문화적 소외의 악순환’을 내포하고 있다.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기준으로 재단할 경우 개인의 다름과 개성이 상실될 위험성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을 통하여 인간 모두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과 자유로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해방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았다. 네 번째로 가난, 권

력, 소외의 악순환은 또 다른 ‘자연파괴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 하느님의 세상 창조 목적에 따라 자연과 생태학적 평화를 이루는 해방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악순환들의 기저에는 ‘의미의 부재라는 악순환’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으로 인하여 인간은 삶에 대한 의미의 부재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삶이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의 순간에도 숨겨진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여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해방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았다(Moltmann, 2017a: 266-272; 2017b: 467-479).

물론 몰트만도 김수환 추기경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추구한 정치 신학이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근본 토대를 간과할 경우 의도치 않게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위험성을 인지하였다. 그리스도인 삶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 즉 “초월적인 경건”과 “연대적인 경건”이 조화가 아닌 분리를 넘어 대립에 이르게 될 경우, 고통 중에 체험한 하느님 사랑의 힘으로 사회가 직면한 고통에 직면하고 극복하려는 모든 실천이 그리스도 신앙적 정체성을 상실한 채 정치적 해방운동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사실 몰트만의 사회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은 김수환 추기경의 방안과 비교할 때 이데올로기적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김 추기경이 추구한 사회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메시아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와 억압으로부터 ‘인간 해방’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가치를 먼저 고려한 결과 유신 독재 및 군사 정권은 물론 보수 정치세력으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기본 토대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하느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일치 공동체를 추구하려는 그리스도 복음 선포의 근본정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Park, 2013: 233; You, 2012: 199-200; Park, 2020: 32-36; Pak, 2021: 258-259). 한편 몰트만이 추구한 정치 신학, 특히 인간 소외와 인권 탄압을 불러오는 악순환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때, 이전에 논의되었던 ‘희망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에서 드러나는 종말론적 희망과 고통 중에 함께 아파하는 하느님 개념과의 관계에서 논의되지 않고 이데올로기적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인상을 남긴다. 왜냐하면 동시에 추구하기 힘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실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균형감 없이 추구한 결과, 마르크스적인 경제혁명론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적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비판과 함께 교회가 메시아적 공동체로 백성들의 해방을 위한 봉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몰트만의 신학적 견해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복음의 근본정신이 간과된 채,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적 혁명을 도모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 등 교회 내외로부터의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몰트만의 정치 신학에서 가장 부족했던 점은 사회적 악순환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정치 성향이 아닌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모든 인간이 하느님 사랑 안에

일치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그리스도 신앙의 근본정신과의 논리적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 성찰이 부족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Park, 1989: 21-24).

IV. 결론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실체는 그 원인과 양상이 다양하기에 그 의미를 확정적으로 개념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후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 중의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 삶을 영위할 동기를 발견하기 위해 직면하게 되는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어떠한 이성적 논리로도 명확한 해답을 찾기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초월자 하느님을 사랑 자체인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신앙에 기대어 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가 고통의 책임에서 하느님의 무고함을 변호하는 이른바 신정론(神正論)적 태도를 유지한 결과로 ‘지금 여기에서’ 실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아무런 위로와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상흔을 남긴 제2차 세계 대전의 참혹함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의한 냉전 시대와 그에 따른 정치적 부패 상황 등을 공통으로 직면해야 했던 천주교 실천적 신학자였던 김수환 추기경과 개신교 이론적 신학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이 전개한 고통의 신학을 비교 고찰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교회 일치 차원은 물론 고통의 문제를 신정론 차원을 넘어 새로운 신학적 전망으로 고찰할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본다.

먼저 두 인물 모두 고통 속에서 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종말론적 전망에서 찾았다. 김수환 추기경은 상선별악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세에서 무죄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후세의 보상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인정받고 고통 중에도 희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몰트만은 이 희망의 이유를 그리스도론적으로 성찰하여 김 추기경의 견해를 심화 및 보완한다. 인간이 감당하는 고통과 죽음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내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은, 고통과 죽음의 실체에 대한 최종적인 정복이 이루어질 하느님 나라라는 실체를 확증하고 이 나라의 완성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으로 무죄한 이들이 당면한 현재의 고통을 견디고 극복할 힘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김 추기경과 마찬가지로 종말론적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의 차원을 포함한 사회적 고통이 일으키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직면하고 극복하려는 실천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선취하도록 이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분’이라는 새로운 하느님 개념을 제시한다. 김 추기경은 하느님이 무죄한 고통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 신앙으로도 명확한 논리적 답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느님의 전지전능함을 자연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

하거나 인간이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게 하는 자유를 통제하는 능력 등으로 ‘사랑 자체인 하느님’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몰트만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고찰함으로써, 사랑의 관계에서 고통은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자발적인 고통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고, 하느님이 자신을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분’으로 드러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을 포함한 사회적 고통에 능동적으로 직면하기 위한 사랑 실천의 중요성을 환기하였다. 오늘날 인류가 물질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동시에 빈부격차의 심화와 함께 각종 비인간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김 추기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모든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복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몰트만도 김 추기경과 마찬가지로 사랑 실천을 추구하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하느님의 현존 체험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 하느님 사랑 체험은 우리를 사회적 고통의 상황에 연대하고 극복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끌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고통 중에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 사랑 체험을 증거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두 인물이 추구한 고통의 신학은 이론적 고찰의 차원을 넘어 실천을 지향하는 신학으로 발전됨을 알 수 있다. 다만, 김 추기경이 사회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하느님 사랑 선포라는 복음 정신에 입각한 신앙적 토대 위에서 제시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는 신중함을 유지한 반면, 몰트만의 경우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실천 방안으로 제시되고, 사회에서 소외된 특정 계층의 권리 보장을 균형감 없이 추구한 결과 이데올로기적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환 추기경과 위르겐 몰트만이 전개한 고통의 신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책임에서 하느님의 무죄함을 변호하려던 사변적 영역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하느님 나라 완성이라는 종말론적 전망으로 고통 중에서 희망할 가능성을, 인간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극명하게 계시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제 하느님을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그리고 미래적 종말론에 대한 희망과 고통 중에 체험하게 되는 하느님 사랑의 실존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랑의 실천으로 이끌며, 개인의 차원을 포함한 사회적 고통에 연대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볼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체험한 하느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는 점에서 고통의 신학 분야에서 그들이 남긴 긍정적인 성과들을 높이 평가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References

- Cho, J. H. (2011). A Study on View of Humanity by Cardinal Kim Sou-Hwan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Anthropology: Focusing on Human Dignity. *The Catholic Theology*, 19, 52-92.
- Cho, J. H. (2012). A Study on Human Relationships in the Thoughts of Cardinal Kim Sou-hwan. *The Catholic Theology*, 20, 67-100.
- Cho, J. H. (2017). A Study on the Spirit of the 2nd Vatican Council in Cardinal Kim Sou-hwan's Thought. *The Catholic Theology*, 31, 59-94.
- Choi, S. T. (2020). A Study on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Trinity: Focusing on Moltmann's View. *Studies in Religion*, 80(1), 147-175.
- Kim, B. R. (1990). Theological Meditations (XVI): The Christification of Suffering (II). *Theological Perspective*, 90, 98-108.
- Kim, D. K. (2015). The Structure and Features of Moltmann's Christology. *Theological Perspective*, 169, 74-105.
- Kim, K. J. (2005). God of Hope - Religion of Hope: Moltmann's "Theology of Hope", its Basic Ideas and Contemporary Significance.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12, 31-62.
- Kim, M. M. (2013). A Critical Study on Moltmann's Theology of the Cross: Discovering Hope from Suffering God. *Korea Reformed Theology*, 37, 220-255.
- Kim, N. H. (2022). Cardinal Kim Soo-hwan's Perspective on Human Beings and on Lif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8, 95-117.
- Moltmann, J. (1973). The 'Crucified God': God and the Trinity Today. *Theological Perspective*, 23, 141-154.
- Moltmann, J. (1975). 'Theology of Hope'. *Theological Perspective*, 29, 146-157.
- Moltmann, J.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김균진 옮김 (2017a).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Moltmann, J. *The Crucified God*. 김균진 옮김 (2017b).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Moltmann, J. *Theology of Hope*. 김균진 옮김 (2017c). 희망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Moltmann, J. *The Trinity and the Kingdom*. 김균진 옮김 (2017d).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Moltmann, J. & Suh, K. S. (2014). 'The Foundation of My Theological Thinking is Christ': Dr.

- Moltmann's Life, Theology and Realistic Horizons. *Theology and Church*, 1, 254-279.
- Nho, S. S. (2020). Civic Education for Maturity of a Person as a Whole: Adorno, Cardinal Stephen Soo-Hwan Kim, and Pope Francis's Educational Vision. *Journal of Human Studies*, 40, 61-105.
- Pak, P. G. (2021). The Christian Spirituality of Cardinal Sou-hwan Kim: Contextualized and Interpreted. *Theological Perspective*, 212, 241-292.
- Park, A. R. (1989). A Study on the Later Thoughts of 'Theology of Hope'.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56(1), 11-34.
- Park, I. Y. (2013). Social Spirituality according to Stephen Cardinal Kim: Focused on Concret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in Modern Society.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56, 217-243.
- Park, S. C. (2018). The Humanistic Background of Cardinal Kim's Notions of Peace in Relation to Augustine's Perspective. *The Catholic Philosophy*, 31, 187-226.
- Park, S. C. (2019). Cardinal Kim Sou-Hwan's Succession to the Spirit of 5·18 through the Spirituality of Community. *Theological Perspective*, 205, 2-65.
- Park, S. C. (2020). Cardinal Stephen Kim Sou-hwan's 'Church for the World': The Korean Church's Acceptance of the Ecclesiology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Journal of Human Studies*, 42, 7-55.
- Park, Y. B. (2012). The Theodicy and the Suffering of God: The Concept of the Suffering of God as the Answer for a Theodicy.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33, 243-279.
- Suh, J. H. (2015). Research on the Legal Reflections of Cardinal Stephen Kim, SouHwan: Respect for the Human Person. *Journal of Human Studies*, 29, 191-230.
- You, J. W. (2012). Cardinal Kim Sou-Hwan's Point of View on Poverty and Economic Justice.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18, 171-204.
- 김수환 (2000).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사람과 사람. (Translated in English) Kim, S. H. (2000). *For You and For Many*. Seoul: People and People Publishing Company.
- 김수환추기경전집편찬위원회 편 (2001). 김수환추기경전집 전 18권. 서울: 가톨릭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The Cardinal Stephen Kim Sou-hwan Compilation Committee (2001). *Cardinal Stephen Kim Sou-hwan Complete Collection, 18 volumes*. Seoul: The Catholic Publishing Company.
- 이충렬 (2016). 아, 김수환 추기경 1. 파주: 김영사. (Translated in English) Lee, C. R. (2016). *Ah, Cardinal Stephen Kim Sou-hwan, 1*. Paju: Gimm-young Publishers.